

지리산국립공원 등산로의 통행 패턴

Visiting Pattern of Trail in Chirisan National Park

호남대학교 도시·조경학부*
진주산업대학교 산림자원학과**
내장산국립공원 남부지소***
오구균*·추갑철**·임윤희***

I. 연구목적

지리산국립공원은 88고속도로의 개통과 전북 반선에서 전남 천은사를 잇는 지리산 관통도로가 생겨남으로써 지리산 서부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해져 노고단으로의 이용객 증가는 물론 차량이용객의 증가, 단체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의 통행 패턴 변화를 과거의 연구와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II. 연구방법

1. 조사시기

지리산국립공원의 남부, 북부, 동부지역 등산로의 요일별 통행패턴을 조사하기 위해서 1999년 여름철에는 8월 13일~8월15일까지 1차조사, 가을철에는 10월 22일~24일까지 2차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방법

지리산국립공원의 각 매표소의 탐방객 수 자료를 토대로 10년간의 탐방객 수 변동을 분석하였고, 여름철과 가을철에 실시한 현지 조사자료를 토대로 지리산국립공원 능선부 등산로의 주요 결절지점의 계절별, 요일별 및 시간대별 탐방패턴과 입장객 대비 등산객 비율 등 탐방패턴을 분석하였다.

조사지점으로는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지역의 경우 노고단에서 성삼재방향, 화엄사방향, 임결령(반야봉)방향의 등산로를 조사하였고, 지리산국립공원 남부 및 북부지소의 협조를 구하여 각 매표소의 입장객 수를 조사

하였다. 지리산국립공원 동부지역은 세석평전에서 노고단방향, 제석봉방향, 대성리방향, 거림방향, 한산계곡방향의 등산로를 조사하였고, 장터목산장에서 중산리방향, 천왕봉방향, 한신계곡방향의 등산로, 천왕봉에서 중산리방향, 중봉방향의 등산로를 조사하였고, 지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협조를 구하여 각 매표소별 입장객 수를 조사하였다.

여름철과 가을철 피크시에 평일(금요일), 주말(토요일), 휴일(일요일)로 구분하여 통행객 수를 조사하였고, 여름철 조사시각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을철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간대별로 나누어 조사했다. 통행객 수 조사시간은 20분단위로 나누어 하되 통행객 수가 많은 경우는 10분조사후 10분휴식 방법으로 조사한 뒤 2배하여 시간당 통행객 수를 산정했다.

Ⅲ. 연구결과

1. 탐방객 수 변동

지리산국립공원의 전년대비 연간 탐방객 수의 증가율은 1991년에는 2%의 감소를 보였으나, 1992년에는 16%, 1993년에는 1%, 1994년에는 22%, 1995년에는 18%, 1996년에는 약간 감소한 1%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1997년에는 13%, 1998년에는 I.M.F의 영향으로 33% 급격한 감소율을 보였으나 1999년에는 전년대비 13%로 증가하여 회복세를 나타냈다.

지리산국립공원의 탐방객 수는 1987년 124.3만명에서 성삼재를 경유하는 지리산관광도로(지방국도 861번)가 개발된 후 1987년 대비 1989년에는 2.15배, 7년후인 1996년에는 395.8만명으로 증가하였으나, 1999년에는 291.8만명으로 1987년 대비 2.3배 증가에 그쳤다. 이것은 단체관광객 수 감소 등 탐방패턴 변화와 I.M.F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것으로 판단된다.

2. 지역별 탐방패턴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지역 천은매표소, 화엄매표소, 연곡매표소를 통과한 여름철 탐방객 수는 금요일 4,116명, 토요일 9,029명이었고, 일요일에는 약간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0,590명이 탐방하였다. 가을철 탐방객 수는 일요일에 15,137명, 토요일에 6,140명, 금요일에 3,649명 이었고, 이중 천은매표소를 통과한 탐방객 비율은 금, 토, 일요일에 각각 54.9%, 63.5%, 54.4%로서 가장 많았다.

지리산국립공원 동부지역인 대원사, 내원, 거림, 백무동, 추성, 중산리매표소를 통과한 여름철 탐방객 수는 일요일에 8,877명, 금요일에 2,987명, 토요일에 2,345명 순으로 많았다. 여름철 지리산 동부지역을 탐방한 입장객 중 대원사매표소를 통과한 탐방객이 4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백무동매표소 24.1%, 내원매표소 13.7%, 추성매표소 10.4%, 중산리 매표소 10.1%, 거림매표소 1.1% 순으로 나타났다.

지리산동부지역인 대원사, 내원, 거림, 중산리매표소를 통과한 가을철 탐방객 수는 일요일에 3,791명, 토요일에 1,013명, 금요일에 476명이었다. 이 중 대원사매표소를 통과한 탐방객 비율은 금, 토, 일요일에 각각 45%, 46.0%, 37.3%이었고, 내원매표소를 통과한 탐방객 비율은 금, 토, 일요일에 각각 1.1%, 0.0%, 6.2%이었다. 거림매표소를 통과한 탐방객 비율은 금, 토, 일요일에 각각 0%, 0.7%, 3.2%이었고, 중산리매표소를 통과한 탐방객 비율은 금, 토, 일요일에 54%, 44.3%, 53.3%이었다. 이처럼 대원사 매표소보다 중산리매표소의 탐방객 수가 많은 것은 여름철에 대원사 주변 계곡에서 수변위락활동이 많았고, 가을철에는 중산리에서 천왕봉으로의 등산객이 많은 영향이라 생각된다.

3. 입장객 대비 등반비율

지리산국립공원의 지역별 매표소 입장객 대비 등반비율은 대체적으로 여름철보다 가을철이 높았으며, 노고단이나 천왕봉으로의 등반비율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순으로 높았다.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을 통과해 성삼재를 걸쳐 노고단 방향으로의 등반비율은 10.6%~52.8%로서 주왕산국립공원의 8%이내, 가야산국립공원과 속리산국립공원의 12%이내, 오대산국립공원의 13%, 설악산국립공원의 6%~17%보다는 높고, 치악산국립공원의 20%~60%보다는 낮았다. 특히, 지리산국립공원 동부지역의 중산리매표소 입장객 대비 천왕봉 정상으로의 등반비율은 70.4%~10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중산리에서 천왕봉방향으로의 등반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다른 곳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천왕봉까지 접근성이 용이하고 시간이 짧게 걸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4. 능선부 통행패턴

1999년에 조사한 계절별, 요일별 능선부 주요 지점의 탐방객 수는 대체

적으로 노고단, 천왕봉, 장터목, 세석평전 순으로 많았는데, 이는 성삼재 관통도로로 인하여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요일별 능선부 주요 지점의 탐방객 수는 계절에 관계없이 일요일에 가장 많았다.

이상으로 지리산국립공원의 계절별, 요일별, 시간대별 통행객 수를 고려할 때 주요 통행지점에서의 통행객 수는 계절별, 요일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그 원인은 계절별 이용행태와 요일별 탐방패턴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